

# 교수 용어를 영어로 하는 강의



**권 오 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oryang@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사, 석사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영어교육(ESL) 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영어교육 박사  
대한영어교육학회(KOTESOL)장, 한국영어교육학회, 한국영어평가학회장 역임  
관심분야: 제2언어 학습, 영어평가

## 1. 서론

대학에서 영어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라와 사회가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면서, 대학도 소위 세계적 수준의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을 목표로 내걸고 외국인 교수 초빙, 외국인 학생 유치, 영어로 강의하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나,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움직임이 그 급속하고 일률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일과성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강화되어 하나의 일상으로 될 것이다.

외국인 교수 초빙과 외국인 학생 유치의 수준이 학교에 따라서 다르듯이 영어로 하는 강의도 학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조금 다르다. 영어로 하는 강의는 고려대학교가 일찍부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고려대학교는 일찍이 전체 강좌의 1/3을 영어로 강의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신입 교수들에게 그런 취지로 일정 비율의 강의를 영어로 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 필자는 고려대학교 신입교수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영어로 하는 강의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는 국민대학교에서도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고려대학교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영어강의를 추진하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이고,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도 차츰 영어강의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개개인 교수에게 완전히 새로운

교육방식을 요구하므로 이것이 개별 교수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이수한 교수들의 경우는 영어로 강의를 듣고, 발표도 영어로 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나 비영어권에서 공부를 한 교수들의 경우,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배경 하에, 대학에서 교수 용어를 영어로 강의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본 논의는 객관적 과학적 논의라기보다는 주관적, 교육적 논의에 가깝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 2.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들

### 1) 교수용어: 영어? 한국어?

교수용어(medium of instruction)가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하는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영어로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영어로 가르친다면 어느 정도 영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1) 영어로 가르치는 목적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는 목적은 첫째는 한국의 세계화를 선도할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교과내

용을 원형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영어 사용의 정도

영어로 가르치는 경우,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 완전 몰입식(total immersion)과 일부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부분 몰입식(partial immersion)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나, 학습효과 측면에서 완전몰입식보다는 상황에 따라 부분몰입식이 더 나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시나 일화 같은 경우에 영어로 제시하는 것과 한국어로 제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할 경우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2) 학문의 한국화

영어로 수업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학문의 한국화라는 측면이 있다. 학문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된 학문적 성과를 한국어로 바꾸어줌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저변을 넓히고 자생적인 학문 발전의 기반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의 철학을 프랑스어로만 논하고, 괴테의 작품을 독일어로만 논하였다면, 보통의 한국인들이 그들의 철학이나 문학에 대해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페스탈로치의 교육철학,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을 모두 해당언어나 영어로 공부했다면 새로운 개념의 번역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학문적 대중화도 더디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강의는 영어나 해당 언어로 하되, 일반인을 위한 번역서는 별도로 나올 수 있다고 답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영어 강의를 영어를 통해서 교과내용을 직접 바로 배우는 것이 국제화에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니 모든 것을 번역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는 사실일 것이다.

## 3) 한국 표준 영어 (Korean Standard English)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큰 핸디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부족한 영어 능력이다. 영어를 구사해서 강의를 진행할 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것과,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이 주된 걱정거리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약간 인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발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믿음(myth)에 대해 생각해보자.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발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발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선 원어민의 발음이라는 것조차도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크게 말해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발음이 상당히 다르다. 영국 안에서도 런던 지역과 스코틀랜드의 발음은 많이 다르다. 같은 미국 안에서도 북동부와 서부가 다르고, 남부 사투리는 또 다르다. 세계어로서의 영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다양한 영어발음이 지구상에 혼재한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 대해 어느 하나가 맞거나 틀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반기문 효과라는 말이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어식 영어발음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국제 정치인이나 기자는 없다. 따라서 교육받은 비원어민으로서의 한국인이 한국 표준 영어(Korean Standard English)를 한다면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하나의 영어 브랜드가 될 것이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영어 구사 능력의 문제인데,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전달하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고, 문법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당교과에 대한 교재가 이미 영어로 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은 이미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셈이므로, 이를 적절히 요약하여 파워포인트 등으로 제시한다면, 영어구사 능력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교수의 낮은 영어 실력 때문에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를 낮게 하려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학생들 스스로 교수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자신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강의 내용 자체에 빠져들고, 그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표준 영어(Korean Standard English)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강의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강의를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교육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교육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교수들, 특히 이공계 교수들 중에는 과학 내용이 중요하지, 가르치는 방법이나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과학자이면 되었고, 과학적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학자가 된다고 해도 교육학을 또 하나의 과학적 지식의 축적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은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을 예술로 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작 잘 못 가르칠 수도 있고, 별로 많이 알지 못해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을 남들이 알도록 만드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적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능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 문제로 돌아가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과학인가 예술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는,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어가 잘 된다면 자기가 아는 지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로 하는 강의는 한국어로 하는 강의보다 더 예술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교수의 역할

교육이 과학인가 예술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교수가 전적으로 강의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극단에서 단지 자원의 역할을 하는 개방형에 이르기까지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H. D. Brown이라는 언어교육학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가장 통제적인 통제자(controller)에서 가장 비통제적인 자원자(resource)에 이르는 다섯 가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Brown, 2007).

- 1) 통제자(controller): 수업시간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 2) 지시자(director):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연극의 연출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 3) 관리자(manager): 수업 활동 시간을 조직하되, 그 틀 안에서 개별 학생의 창의적 활동을 돕는다.
- 4) 촉진자(facilitator): 학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생이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학습 과정을 촉진한다.
- 5) 자원자(resource): 가장 비통제적인 역할로서, 학생들이 조언이나 상담을 원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준다.

이제 이러한 교사/교수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영어로 하는 강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수가 수업의 통제자이면서,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때는 영어 능력이 매우 중요

시된다. 다시 말해, 교수가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만이 모든 오묘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강의를 수업을 영어로 한다면 영어 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교수가 학습의 촉진자(facilitator), 자원자(resource)라고 자신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교수 자신의 영어 능력은 그리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 지식은 교수의 입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많은 참고서, 번역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미리 배우고 준비해 오게 하고, 교수는 그런 지식을 학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게 한다면, 교수 자신은 영어를 아주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교수 용어를 영어로 하는 강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5. 수업의 구현

영어로 하는 수업을 구현하는 데에는 그 접근법의 철학이 필요하고, 그 철학에 따른 구체적 강의 준비 및 절차가 필요하다.

##### 1) 수업을 위한 기본 철학

위에서 논의한 교수의 역할, 그 중에서도 촉진자, 자원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영어로 하는 강의의 구현에서 하나의 구현 가능한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접근법의 기본 철학은 다음과 같다.

- (1) 학습의 궁극적인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 (2) 교수는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형식적 장치를 마련한다.
- (3) 평가는 학습을 위한 중요한 동기유발제가 될 수 있다.

##### 2) 수업 구현 방법

이와 같은 철학에서, 교수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1) 강의 노트 (Lecture notes)

강의 노트는 영문으로 된 교재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곳에 교수의 해설, 예시 등을 첨가한 것으로, 강의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인쇄하여 수업 전에 미리 읽고 준비하게 한다. 학생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참고서, 번역서 등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강의 노트는 학기 초에 전체 강좌의 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으나, 강의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적절히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주일 전 정도에 웹에 올리는 것이 좋다.

### (2) 퀴즈 (Quizzes)

학생들이 영어로 하는 강의를 잘 따라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퀴즈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퀴즈는 정식 시험에 비해, 간략하고,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시험이다. 퀴즈가 커버할 내용은 해당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미리 읽어 와야 할 부분(reading assignments)이다. 퀴즈의 내용은 학생들이 미리 교재의 해당 부분과 강의 노트를 정독하고 온다면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한다. 그리고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히 10문항 정도의 True/False 형 문항으로 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교수가 미리 문항을 워드프로세싱 파일에 제작하여서, 수업 시작 전에 백지를 나누어주고, 빔 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추면 학생들이 T/F로 답을 적어내고, 그 후에 교수가 정답이 들어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비추어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답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평가 이론에 따르면, T/F 문제의 정답 확률은 50%이므로, 오답에 대해서 감점을 하면, 학생들이 추측에 의한 답을 막을 수 있다. 즉, 10점 만점에 한 개가 오답이면 8점, 한 개를 공백으로 두면 9점이 된다.

이와 같은 퀴즈는 학생으로 하여금 미리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게하고,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하며, 정규 시험에 미리 대비하여 공부를 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게다가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인 경우, 학생들이 영어로 된 교재를 철저히 예습해오기 때문에 강의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다.

실제로 퀴즈를 본다고 예고한 날과, 퀴즈를 보지 않는다고 예고한 날의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은 퀴즈를 상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학기 강좌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퀴즈 덕분에 책을 열심히 독파했다는 소감을 피력하기도 한다.

### (3) 영어로 하는 강의 (Teaching in English)

위에서 직접 간접으로 언급하였지만, 학생들이 퀴즈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교재를 읽고, 강의노트를 읽고 강의실에 들어왔다면, 영어로 하는 강의는 그만큼 쉬워진다. 따라서 교수의 역할은 위에서 말한 촉진자(facilitator), 자원자(resource)의 역할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추가적인 예시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토론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공계통의 수업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왔다면 실험 진행도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 (4) 보고서 (Report)

보고서를 요구하는 강좌의 경우, 보고서 작성을 영어로 하게 하면,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인터넷 등에서 표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의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세화하여주면 그런 표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보고서도 표절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학생들의 인격과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문보고서를 하나 완성한다면, 그로 인한 영어능력 향상은 상당하다. 교수 자신들도 대학원 시절에 영문보고서를 하나씩 쓰면서 영어 능력이 늘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 (5) 평가 (Evaluation)

퀴즈가 상시적인 학습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인데 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이를 총정리하는 평가이다. 강의를 영어로 했다면, 이 시험들도 영어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단답형은 영어로 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길게 서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영어로 하게 할 것인지, 한국어를 용인할 것인지를 교수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영어로 답을 하게 한 경우, 사소한 문법상의 오류, 철자상의 오류 등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 6. 결론

지금까지 교수 용어를 영어로 하는 강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러면서도 영어로 하는 강의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어떤 접근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논의와 방법이 영어로 하는 강의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고,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영어로 강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수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교수가 자신의 영어에 대해 지나치게 콤플렉스를 느끼지 말고, 사전에 잘 준비하고, 꾸준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보람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 참고문헌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3rd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Inc.